

2023년 겨울호

제 113호 2023년 12월 4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발행인 · 성기문 / 편집인 · 권순희 최하영 / 학생기자 · 장동원 문예은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 2023년 2학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연합예배 —

중 강 예 배

자연과학대학 26동 B101호
12월 4일 (월) 저녁 6시 30분

서울대기독교인연합 @snu_christianunion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중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중강 예배가 12월 4일 월요일 6시 30분에 26동 B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중강예배 말씀은 IVF 김순민 간사가 담당한다. 주제는 '스테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을 보이다'이며 본문 말씀은 행 6:1-7:60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이해원
- 2면 연합사경회 후기 ... 김진홍/우진영
편집인 취임사 ... 최하영
- 3면 과기독모임 소식 ... 윤서혜/유의찬
- 4, 5면 중앙위원들과의 대화 ... 편집부
- 6면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 ... 준비팀
요르단 비전트립 ... 김성은
찬양 버스킹
- 7면 바이블 칼리지 수강후기 ... 김성현
비전스쿨 수강생의 글 ... 장효형
선교사 전시회 ... 중앙위원회
- 8면 개강 연합사경회

교수칼럼

모험으로 사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

제가 좋아하는 폴 투르니에의 책 제목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합니다. 안전한 길이면 도전 가득한 길이면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각자의 몫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던 해, 저는 유학 갈 선택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호되게 경험한 교육현장 부조리일 수 있고, 사춘기에 접어들며 그저 어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선택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유로운 형편이 아님에도 부모님을 뒤로 하고 떠난 유학길은 모든 것이 신났습니다. 독립적인 생활, 주도적인 삶, 새로운 문화와 공부. 모두 즐거웠습니다.

몇 년 후 IMF 경제 위기가 닥치고 가족은 서바이벌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2:30대는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전단지를 돌리던 시간, 등록금이 없어 휴학계를 내야 했던 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교과서를 수 번 읽은 밤, 다시 들어간 학교에서 장학금 받기 위해 공부하던 도서관. 그 때는 막막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찬란했던 날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누가 제게 치대를 지원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억울함을 경험한 이십대여자인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의사라는 직업은 멋진 모험일 것 같았습니다. 치대에서 공부하며 Paul Farmer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회의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됐고 의사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건강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졸업 후 미국 경제위기로 자의반 타의반 해군 군의관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보건부에서 일하며 보건 정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신나던지 군인장학금으로 보건 석·박사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Benjamin Lozare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치료를 넘어 건강을 목표로 하는 의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후 뉴욕 할렘 병원에서 일하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부에서 일할 때 우수한 전문가와 오랜기간 애써 발간한 임산부 구강건강 가이드라인 존재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할렘의 가난한 임산부 대부분은 치과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사에게 열심히 가이드라인 중요성을 알리고 모자 구강 보건프로그램을 현실에 맞춰 개발했습니다. 십대 임산부, 소아당뇨병 환자, 어린 아가들, 그리고 치열한 삶을 마주한 어머니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길을 소개했습니다. 때로는 환자 택시비를 내드려야 할 때도 있었고 할렘 어두운 길가운데서 만난 부모의 힘찬 high-five도 있었습니다. 그 때 저에게도 아직 기저귀를 떼지 않은 아이가 있었는데, 삶은 정신없었지만 마음은 짙 짙 차오르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또한 여름이면 남편과 아이와 함께 케냐 오지에 학교를 세우고 세계에서 온 봉사자들과 함께 케냐 자립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covid-19가 터집니다. 뉴욕 병원은 문 닫았고 치과인력인 저도 긴급인력으로 코로나 병동에 투입됐습니다. 매일 밤 시신들이 냉동창고로 들어가고, 병실에 격리된 환자가 자살 시도하는 것을 본 한 달 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부동체안고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열정이 시험대에 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국제보건



과 사회의학을 가르쳐 주신 Paul Farmer 교수님이 르완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올인할 때가 된 거 같아.” 이제는 내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가난과 질병 문제와 씨름하는데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멋진 기회와 서울로 오게 됩니다. 중학교때 뉴질랜드로 떠났던 단발머리의 소녀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가난과 병을 연구하는 소아치과의사입니다. 매일 개발도상국 어머니와 아이 건강을 위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고민합니다. 성인이 되어 겪는 한국 생활은 쉽지 않지만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내가 선택한 일을 하기 위해서이니 더욱 열심히 일합니다. 지난 여름, 13번째로 간 케냐 길리피에서는 다른 해 보다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으로 궁지에 몰린 이들이 물건을 훔치고 인생 시작점에 있는 대학생이 다리에서 몸을 던집니다. 식사를 마쳐도 취직 확률은 20%가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길을 막고 당연히 뇌물을 요구하고, 마약의 검은 손길은 절망한 젊은이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구조화된 부패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애씀이 과연 얼마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바뀔까?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라고, 일단 돈 벌고 나중에 봉사할 수 있다던 조언은 현명한 것이었을까? 나는 너무 순진했나? 그 때 오랫동안 함께 케냐에서 흠뻑 뉘인 밥을 같이 먹던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혜원, 인생을 돌아봐. 아름답지 않아? 네가 만났던 사람들, 사건들.”

더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가고 살던 데로 살고.

옳고 그름 논쟁 위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너머에는 영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중간마루인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어떠한 심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자이나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혜원 교수(치의학과)

연합사경회 후기



개강을 맞이해 연합 사경회로 26동 지하에 모였던 날이 옛 그제 같은데, 어느덧 추워진 날씨 속 한 학기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셨나요? 지난 9월 새롭게 목표했던 것들을 얼마나 거두셨는지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저에게 개강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주한 새로운 학기를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따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한 학기 동안 질문에 답변해 나가는 삶. 타인의 시선과 쟁쟁한 학우들 사이에서 나를 증명해 나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앞둔 막막함,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말게 된 SFC 대표, 긴장과 부담으로 준비했던 대표기도. 당

시 제 마음 속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연합 사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연합 사경회 말씀을 들으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키워드들이 부끄럽게도 한 가지 질문으로 꿰뚫렸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제 능력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채 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 속에서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직면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나, 미사엘 그리고 아사라가 그들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고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맞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그들은 내 능력의 부족함은 조금도 관련이 없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능히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확신하며 목

을 걸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 않을지라도, 또 설령 하나님께서 풀무불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종강예배를 맞이하며 제 한 학기를 잠잠히 되돌아봅니다. 저에겐 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한 학기였습니다. 때론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옆에 계셨음을 더 체험하는 학기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로 가득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순간조차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진홍(원자핵공학과 19)



지난 9월에 열렸던 서기연 연합사경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체 학교 안에 오래 머무르면서 활동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서기연 자체도 친숙하지 않았고 연합사경회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현재 속해 있는 선교단체인 ESF 간사님의 추천을 받아 좋은 기회로 연합사경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기쁨마음으로 하겠다고 했고,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생각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경회 찬양을 준비했다.

기타를 잡고 난 뒤 수많은 캠프와 수양회, 대형 집회들을 섬겨 왔지만 이번 서기연 연합사경회는 더 특별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평일 삶의 현장"에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꼈고, 그래서 ESF 지체들과 함께 서울대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경회를 두고도 이 시간이 서울대 캠퍼스에서 거룩히, 때로는 외롭지만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많은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날 찬양팀과 함께한 시간들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 "전도하기 어려운 학교"라는 꼬리표가 붙은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고, 또한 서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외롭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당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경회에 참여했다. 연합사경회에 참여했던 ESF의 서울대 양은 매일같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그 소망의 현장에서 서울대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찬양 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했다. 고성준 목사님께서 서울대 캠퍼스의 복음화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소망을 가지고 살 것, 그리고 소망의 이 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낼 것, 눈 앞에 창문이 다가올 때 두려워 말고 담대히 그 창문을 열어낼 것. 들은 말씀을 원동력 삼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꿈 꿀 수 있기를 기도한다. 또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믿음으로 소망을 쟁취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경회 둘째 날 찬양팀 식구들과 서울대 캠퍼스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전한다.

우진영(영어교육학과 22)

편집인 취임사



안녕하세요, 어느덧 서울대학교에서 6년을 채워가는 언어학과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석사과정 수료를 앞두고 출구전략을 열심히 고민하던 중, 편집인 제의를 받았습니니다. 정확히는 지난 가을호 기획회의에 초대됐었지요. 새삼스럽게도, 모르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도 아니고, 서기연 임원 역할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신앙인 커뮤니티가 주는 사랑과 유익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속해있는 두 공동체 덕분인데, 하나는 대학춘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인기연(인문대 기독교인 연합)입니다.

대학춘교회는 제가 신앙OT를 통해 알게 된 지역교회입니다. 캠퍼스 선교라는 비전으로 가까운 위치에 세워졌기에 서울대 관련자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척박할 줄로만 알았던 서울에서의 믿음 생활은, 교회 덕분에 일찍 안정을 찾았습니다. 대학춘 선배들, 어른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참 열심히 득하고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선교센터 건립 등 교회의 앞길을 고민하는 과정도, 학교와 연결되어 있기에 늘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인기연도 제가 입학 초부터 정을 붙여온 단체입니다. 매주 동아리방에서 갖은 호기심과 걱정을 쏟아내던 새내기, 시간이 지나 대학원생 선배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하고 든든한 모임입니다.

이같은 연결고리들이 있었기에, 학교에서 개종강예배에 참석하고 <진리는 나의 빛>을 받는 것도 익숙했습니다. 비록 익

숙했으나,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머잖아 깨달았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춘교회 청년부 반주자였는데, 텅 빈 본당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일은 아무래도 종종 지쳤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데, 학교에 있는 단체들은, 기독교인연합은 오죽 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1994년에 출발했던 <진리는 나의 빛>이 제100호에 다다른 것입니다! 기념문집을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던 편집팀(경진, 명현, 동원, 재백)은, 다름 아닌 대학춘교회 및 인기연 선배들이었습니다. 2020년 말, 문집이 나오자마자 한 부를 챙겨 정독했습니다. 형제들의 눈빛이 반짝거리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역사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연합의 뒤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헌신이 있었고, 크고 작은 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100호 기념문집을 통해, <진리는 나의 빛>의 가치와 소명도 한층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아래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는 인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신앙인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진솔한 기록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충실하게 기능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세히 증거하는 글도, 어렵지만 중요한 공동의 담론을 성찰하는 글도, 캠퍼스 사역 전반에 소중한 동력이자 자산이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매번 소식지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복음과 기도의 편지가 필요한 곳에 잘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하게도,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이 제법 활기를 되찾

은 올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어, 교회와 학교에서 회복을 구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봅니다. <진리는 나의 빛> 또한 서울대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소식지로서 함께 감당할 몫이 있겠지요.

제가 최근 대학춘 책모임에서 읽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신(mind)과 마음(heart)과 의지(will)를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는 순간,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입 편집인으로서 작은 포부가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격적 성장의 다양한 면을 <진리는 나의 빛>에 골고루 담아내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감사와 결단을 위한 합당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학문과 성경 공부를 병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깊이 알아갑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받은 감동을 주변 지체들과 나눕니다. 공동체 안에서 순종과 섬김을 훈련하며,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대로 친히 빛어주시고, 서울대학교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 시옵소서."

글을 마치며, 그동안 <진리는 나의 빛>을 지혜와 정성으로 가꾸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존경하는 전임자(경진)와 따뜻한 편집팀(동원, 예은, 권순희 권사님)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이 작은 매체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관심 있게 읽어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최하영(언어학과 석사수료)

수의기연 소식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신
생 단과대 모임
수의기연의 대표
를 맡고 있는 운
서혜입니다. 아
직 기도모임이
없거나 없어지다

시피 한 단과대 분들과, 단과대모임에 들어갈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수의기연이 탄생하게 되었고, 저 같은 내향형 인간이 어떤 마음을 받아 수의기연 멤버들을 모으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수의대에 기도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사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저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크리스천인 친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적 슬럼프와 힘든 시기들을 이겨내었던 저로서는 대학교에서도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싶었고, 그러한 모임을 발견한다면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과 2학년 말에 본과 4학년 선배님이 금요일 점심시간에 잠시 말씀을 암송하고 헤어질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려 가보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대표님밖에 와 계시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한 분의 선배님이 더 오셔서 2~3명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임을 한 달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좋았지만 선배님들이 모두

졸업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 그래도 2~3명의 멤버가 다였던 수의기연은 사실상 공중분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과에 진입하며 급격히 많아진 공부량과, 생각보다 맞지 않는 전공 적성에 대한 당황스러움으로 저는 개인적인 문제를 씨름하느라 너무 힘든 나머지 수의기연에 대한 문제를 한구석으로 미뤄놓고 누군가가 부활시켜주지는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황 속에서 만났던 교회는 캠퍼스 사역에 대해 굉장한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저를 회복시켜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에 나를 보내신 부르심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과 캠퍼스의 영혼들을 향한 중보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나서서 무언가 하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했던 저의 마음은 누군가 만들어주겠지, 라는 마음에서 차라리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지 못했지만, 내가 만들어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걸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데, 기질상 저는 이런 게 참 힘들었고, 사람은 또 어떻게 모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이 어려운 저를 위해 저를 좀 더 강권해주세요. 그리고 그 날 저녁, 서기연 대표인 명현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수의대 친구인데, 열정적으로 서기연 활동을 나오는 친구가 있으니 네가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너무 바로 응답해주시니 제가 도저히 내뱉 수가 없었습니다. 명현이에게 수의기



연을 사실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후 명현이는 수의기연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를 강권해주시는 주님의 손길(?) 중 중요한 부분을 담

당해주었습니다ㅎㅎ 그 외에도 얼굴만 알고 있던 후배가 서기연 개강예배를 가시냐고 연락을 하고(저희는 원래 개강 예배를 가도 아는 선후배가 없어서 다른 단과대에 합류하여 식교제를 하곤 했습니다), 우연히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된 후배를 등갓길에 만나 수의기연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반응이 긍정적이기도 했고, 이후 학년 특방에 종강예배 같이 갈 사람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또는 수의기연 홍보를 했을 때 연락이 오기도 해서 지금은 7명의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씨름 많은 연약한 대표인지라 모이자는 말 한 마디가 참 어려울 때가 있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저를 통해서도 모임을 이루어 서로와 수의대를 위해 중보하고 삶을 나누는 모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단과대에도 기도모임들이 일어나고, 이미 있다면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일어나는 기도모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운서혜(수의학과 18)

화학부 기도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학부생 기도 모임 하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의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하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연은 하나님의 연금술사를 줄인 말입니다. 연금술은 중세 아랍에서 발달한 분야로 값싼 납을 비싼 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연금술과 유사하게 보잘 것 없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값진 새사람으로 거듭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연은 비록 규모가 크지 않은 과 기도 모임이지만 은퇴하신 교수님들께서 학부생이시던 시절에도 있었으니 역사가 꽤 깊은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연 모임은 크게 학기 중 모임과 방학 모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화학부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이 함께 강의실에 모입니다. 찬양 혹은 기도로 모임을 시작해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말씀 듣고 느낀점, 삶, 기도제목을 자유롭게 나누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으로 이동해 다 같이 식교제를 하며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방학 모임은 학생들끼리만 모여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저번 여름방학에는 성경 통독 모임을 진행하였고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모여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궁금한 것들

을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연에서는 화학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화학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부활절 퀴즈를 풀어서 제출하면 선물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면 선물을 주고 하연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학부 안에서 최대한 하연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하연 내부에서는 졸업에 가까운 선배들이 멘토가 되고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성원이 멘티가 되는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부 안에서 하연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많은 동아리가 그랬듯이 코로나의 여파로 모임 구성원이 적어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니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게도 부흥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화학부 대학원생 모임도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화학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표의 자리를 맡게 되었을 때는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크고 작은 단체들의 대표를 맡아본 적은 있었지만 기독교 단체의 대표의 자리는 정말 준

비된 사람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감히 그 자리를 맡아도 될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실 것과 제가 부족하다면 그에 맞게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게 되자 걱정은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하연을 통해 저에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연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기대보다 크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1년 뒤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졸업 혹은 군복무 때문에 하연을 떠나게 되어 다음 세대가 굳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늘 하연에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그 과정에 저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대에 많은 기독교 모임들이 다시 세워져 은혜와 복음이 흘러넘치는 자연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의찬(화학부 18)



중앙위원들과의 대화



중앙위원들을 만나다

문예은

저는 산림과학부 21학번 문예은입니다. 현재 IVF와 농기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기사를 작년 2학기부터 맡고 있으며, 이번 학기에 중앙위를 시작하여 이와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명진

저는 수의예과 23학번 정명진이고요. 선교단체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올해 재개한 수의기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은이와 같이 이번 학기에 중앙위를 시작했습니다.

박희성

저는 경제학과 19학번 박희성입니다. 입학 후 CCC에서 활동하다가 군대를 다녀와 올해 복학했고, 복학하면서 중앙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는 사회기연도 나가고 있고, 군대에서는 군중병으로 지냈습니다.

장동원

중앙위로 섬겨주고 계신 어떤 계기가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한 분씩 나눠주시겠어요?

문예은

저는 21 새내기 신앙 OT를 통해서 서기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섬겨주셨던 중앙위원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존경스러웠어요. 이후에 서기연 활동을 계속 하게 되면서 2023 신앙 OT 기획단에 헬퍼팀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오지는 않았어요. 이때 기대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후 여름 수련회 때 '캠퍼스 사역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낙심한 마음으로 서기연이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을지를 기도했어요. 그때 뭔가 마음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네가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교회수련회의 설교 말씀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2학기를 중앙위원으로 지내면 뭔가 심장 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과 함께 제 삶을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나날입니다.

박희성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군대에 다녀오면 학교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세상 물질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원 복음화를 외쳐봐야 이루어지는 거 없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군대 다녀온 후에 사역을 떠난다고요. 그래서 CCC나 다른 기독교 선배님 중에 이런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선배님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군중병으로 섬겼어요. 저희는 평일에는 자기 보직을 맡고 주말에는 교회로 내려가서 군중병을 담당했는데요. 군중병이 부대 전체에 2명 있었고 저희 대대에 저 한 명 있

었고, 다른 대대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에서 후보 만들고, ppt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찬양 인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사람은 많이 안 왔어요. 부대에 사람은 좀 있었고, 믿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 시기에 참 안 왔어요. '온라인으로 원래 다니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되고 군 목사님 설교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왜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는 친구들이랑 같이 교체하고 또 그 자리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다른 군중병 친구랑 매주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도 했었는데 앞에 친구들이 찬양을 너무 안 불러주길래 조금 많이 상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희성이, 내가 너랑 함께 찬양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복학하면 바로 사역의 자리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어요. 나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바로 사역을 하고는 싶는데 어디서 사역할지는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CCC에서 더 활동할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꼭 캠퍼스가 아니라도 교회에서 더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서요. 저는 전역을 조금 일찍 해서 전역한 후에 2학기 휴학을 하고 조금 쉬면서 보냈어요. 그때 연락을 많이 하던 사람이 남명현 대표였어요. 일단 일방적으로 먼저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자기 글 쓴 거 있으면 보내주거나 제 안부 물어 연락해 주면서 또 자기 얘기도 조금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웠어요.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얘기해 준다는 게요. 그즈음 사역 얘기를 하다가 명현 형이랑 같이 사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명현 형이 대표직을 고민하는 걸 듣다가 만약에 대표나 중앙위를 한다고 하면은 명현 형이 하는 사역 같이 해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있었는데 명현 형이 대표직을 맡게 됐고 그러면 나도 중앙위를 해서 한번 같이 사역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중앙위 직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근데 또 중앙위원이 되고 난 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명진

저는 원래 올해 중앙위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3월부터 줄곧 남명현 선배님이 새내기가 중앙위를 하기에는 부담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중앙위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내년 신앙 OT 기획단 모집을 한다길래 기획단을 해도 되냐고 여쭙봤어요. 23학번이 말기에는 부담이 많이 클 거여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때 선배님이 차라리 중앙위가 어떠냐고 조언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봤는데 중앙위에 뭔가 마음이 더 가서 중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위의 추억들

장동원

참 귀한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위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대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특히 열심히 했다 싶은 것이 있으면 혹시 하나씩 나눠주시겠어요. 어떤 사역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명진

저는 1학기 때부터 서기연 기도회를 나갔는데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특별히 저녁 기도회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할 때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부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입시 땀 그랬다가 대학 불고 나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너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대학 불고 나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저녁 기도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회에 나갔어요. 원래 학교 입학하기 전

에는 '대학 들어가면 다 교회 떠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기도회를 하면서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걸 느꼈고 사실 그러면서 다른 중앙위 선배님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저도 어쩌다 보니 이제 중앙위를 하게 되었고, 계속 기도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할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요.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예은

저는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도 명진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얻는 유익도 너무 많고요. 1학기 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1학기 중앙위 김여경 선배님께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민이 해결된 느낌이었어요.

박희성

덧붙여 얘기하자면 1학기에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1학기 첫 개강예배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한 예배구나' 였거든요. 물론 매일 저녁에 열린 기도회에서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그 기도 가운데 정말 기연 사역과 기연에 도움을 주시는 협력단체, 학부모 기도회 등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개강예배가 3월 말에 있지만 3월 초부터 항상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임현우 목사님과 함께 개강예배가 참 은혜롭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예배였다.' 였어요. 기도로 준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게 23년 첫 사역의 이제 시작이어서 그런지 기도회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장동원

그러면 또 기도회 말고 어떤 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문예은

저는 이번 부흥사경회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다른 분들이 기도하시는 사진, 찬양팀들 사진을 찍는 사진 담당이었어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을 못하지 않았냐고 흔히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사실 옆에 가서 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사진 찍으면서 보고 있으면 되게 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26동의 지하에서 예배를 했는데 공간을 가득 채우고 넘칠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 찬양도 정말 뜨거웠어요. 기도에 힘쓰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문단속, 에어컨 조절 등 귀찮아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중간에 하면서 내가 뭔가 작지만 그래도 예배에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박희성

중앙위는 언제 제일 바쁘냐 물어보면 개강·종강 예배 당일이거든요. 이번 사경회는 조금 낮긴 했는데 그래도 평소 개강예배, 종강예배를 하면 거의 아침부터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아침에 약기 세팅하고 공장 시간에는 거의 한 명이라도 자리 지키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예배 중에 사실 제일 바빠요. 예은이가 얘기했듯이 조명이나 에어컨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 명은 식사 준비, 예배에 몇 명 왔는지 세어

보고, 거기서 또 몇 명이 식사하러 갈지 예상해서 준비하고 예배 다 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설교 시간에 나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ppt 계속 넘기고 있고 뭔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막상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작은 섬김으로 또 이 학내에서 이런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그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각 선교단체, 단대기연에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당일에도 안내로 섬겨주시고 악기 세팅 도와주셔서 그래서 더더욱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힘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장동원

지금 보면 수고롭기만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박희성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죠. 이번 중앙위는 진짜 놀기도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딱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출범하자마자 개강 첫 주에 바로 용인에 갔어요. 월요일날 용인 내려가서 월화 1박 2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1교시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9시 반 전까지 오느라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긴 했지만 용인 휴양림 1박 2일 가기도 하고 날씨 좋으면 중앙회의를 저기 노들섬 가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기독교교회관 거기서 서로 1박 2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눔도 많이 하고요. 물론 사역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도 많지만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 사역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또 행복이 크기 때문에 저는 중앙회 하면서 그게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함께 놀러 가고 친해지고 교제하고 또 1학기에 했던 분들과도 지금도 계속해서 삶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안부 묻고 의지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었다는 게, 사람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중앙위를 하면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



중앙위의 비전

장동원

이어서 중앙위 전체 차원의 비전이나 위원 개인적 차원의 비전을 나눠드릴 수 있으실까요?

박희성

저는 전체적인 비전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연합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 연합이라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재미없을 수 있긴 한데.. “사람들 교제하고 사경회를 거치면서 서기연의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 뭔가 당연히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땅 가운데, 또 이 서울대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이러한 기독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력이나 인력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가 뭔가 어떤 부흥을 꿈꾸고 나아가는데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깨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풀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은 지금 조금 확인하고 온전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비전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가운데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들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신입생들을 어떤 단체가 더 많이 데려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단체거나 행사력이 큰 단체들은 충분히 그렇죠. 연합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큰 단체들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23년도 중앙위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온전한 연합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에 하는 귀중한 사역인 아가페 축제까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예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위원으로서의 비전을 나눠볼게요. 저는 서기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현재 중앙위에서는 서울대 ‘선교사’ 전시회, 백서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선교사’ 전시회에서는 신앙 고백이나 사역 취지와 관련된 글이 실리는데, 그러한 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온전한 연합과 사랑과 관련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본질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할, 비본질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가지면 가지자는 신앙 고백문의 일부가 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신앙적 색깔이 다르고 그 안에서 일정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립의 목적이 우리 각자의 뭔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앙위원인 저로서도 백서 편찬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거를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다음 중앙위원들이 봤을 때 앞서 중앙위원들은 뭔가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명진 친구가 이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명진

저는 최근에 ‘왜 내가 중앙위를 해야 했는지 조금 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위를 하고 단체들의 연합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걸 보면서 공동체의 죄는 나의 죄라는 점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결국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최근에 받았거든요. 서기연에 대해 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장동원

서기연 사역에서 느낀 일들이 본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되게 큰 뭔가 자정 작용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네요. 혹시 개인적인 뭔가 중앙위원으로서의 비전이 혹시 있으실까요?

박희성

중앙위 하면서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믿는 것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많고 참 그 계획이 힘들어 보이거나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도 많은데요. 그 순간순간 가운데 나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보다도 판단의 한계를 보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모으셨고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실 사역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이번 사역하면서도 가장 많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앞으로 이 서기연 가운데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걱정이나 염려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더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CCC 순장님께 들었던 인상 깊은 얘기는 우리가 마

블 영화 같은 히어로물을 볼 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하고 있으면 뭔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은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사실 주인공이 안 좋게 끝날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더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히어로물을 볼 때 저는 약간 크리스천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아니면 우리 사역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바라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또 헤쳐 나가실지, 해결해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앙위원들을 위해

장동원

내년에 혹시 중앙위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당부의 말씀 정말 실용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화점은 적게 넣어라. 이런 것도 괜찮아요.

박희성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캠퍼스 내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학교나 이런 사역들이 다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 사역한다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캠퍼스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사모하면 좋겠다. 거기서 부여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명진 친구는 특히 신입생으로서 중앙위원을 한다는 거에서 되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명진

진짜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기도는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중앙위로 응답을 받아서 중앙위를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중앙위를 한지 물론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예비하심 그런 걸 또 느끼고 있어서 확실히 기도는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장동원

알겠습니다. 기도로 이제 각자 준비를 해보시고 선택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예은님은 어떤가요?

문예은

저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기도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평소에 평안하게 기도를 하는 거랑 저녁 기도회, 집회같은 강렬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요.

장동원

그러면 이성의 영역인가요 감성의 영역인가요?

문예은

하나님께서서는 이성, 감성을 둘 다 사용하시니까 사실 통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11시에 저녁집회가 끝나고서는 중앙위를 하겠다고 대표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한 10분쯤 뒤에 잘못 결정하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어서요. 그래도 그 집회 전까지 어느 정도 고민하던 마음들이 있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녁에만 기도하진 마시고 평소에도 조금씩 간혹 기도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여하신 마음에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편집부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 준비팀에서 인사드립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표어 아래 서울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복음의 역사에 참여해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출발한 이어달리기는 오늘도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재학생들의 손에까지 바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어달리기의 직전 주자들이었던 많은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졸업 이후에 우리가 몸 담게 되는 삶의 자리가 캠퍼스와는 다른 점이 많음을 겸손히 배우며 캠퍼스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캠퍼스를 사랑하고 생각하며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과 조언을 주고 싶어하는 졸업생 OB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이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은 최근에 서울대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기독교인으로 여전히 캠퍼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 시 선교단체에서 활동하셨거나, 학과 및 단과대 모임을 섬기셨거나, 개종강예배 등 기독교인연합 행사에 종종 참석하셨던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여러 경험과 이야기가 있는 신분들 역시 모시고자 합니다.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은 우선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정기적인 홈커밍 데이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20일에 있었던 서울대기독교인연합 홈커밍데이는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 준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홈커밍 데이에서는 90년대 학번 선배님들로부터 20년대 학번 재학생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이 바로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갱신이었습니다. 그간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홈커밍 데이는 10여 년의 터울을 두고 이루어져, 졸업생들에게 연락이 원활하게 닿지 못하거나 아쉽게도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은 졸업생 및 졸업예정생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일들에 도움이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사회의 각 전문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분야에 종사하고자 새로 발걸음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전대 그동안 서울대 기독교인 신앙OT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연결되었다면, 이제는 서울대 기독교인 사회초년생OT를

통해 신앙의 선배들과 졸업생들 역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 받은 자리에서 예배로서의 일상을 드릴 준비가 되어간다면, 졸업 이후에도 신앙을 잘 가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2월 29일은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이 홈커밍데일로 캠퍼스에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상 최초로 서울대 학부 신입생, 대학원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는 멀티트랙 신앙OT 행사를 갖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드리는 예배 이후, 졸업생 OB들이 학부 고학번 졸업예정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졸업(예정)생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 전문가이자 직장인 신우회 전문가인 홍석중 JP Morgan 본부장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기독교인 OB 모임 준비팀 일동

서울대 기독교인 OB모임 TF팀에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의 정기적인 홈커밍데이(24년의 경우 2월 29일 예정)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소록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작성 링크: <https://url.kr/gj5fe1>

요르단 비전트립



요르단에서 마지막 밤, 팀원 모두가 둘러앉아 비전트립에서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제가 나눴던 은혜는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 긴 비행을 거쳐 암만의 큰 알리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보이는 풍경부터 '아, 내가 정말 요르단에 왔구나' 느낄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바다 옆에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섬기고 계신 센터로 이동해 요르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심을 나눠주셨습니다. 말씀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였습니다. 더불어 제게 요르단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 수원하나교회 SM 팀과 함께 쌀뜨와 따바르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쌀뜨 팀으로 지역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난민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모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SM 팀 역시 아랍어를 배우는 중이어서 그렇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말을 걸고, 소통하며 교제하려는 SM 팀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와 닿았습니다. 이날 저는 난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SM 팀과 암만 시내 아웃팅을 진행했습니다. SM 팀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SM 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 주제는 하나님이었으며,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역사가 기대된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할 경험,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교제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넷째 날 오전에는 느보산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느보산에서 나눠주신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을 실제로 봤을 때 주신 마음이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나를 통해 일하실 계획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갈망하게 된 시간이었던 듯합니다. 이후 필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기 5분 전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법한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무지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듯이, '나'라는 광야에서도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전을 기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 오전에 자르카 교회에서 구강 교육과 CPR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CPR 팀으로 어머니들을 섬겼습니다. 요르단이 아랍권이다 보니 교회에 대한 경계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남았습니다. CPR 교육이 구강 교육보다 일찍 끝나서 구강 교육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아이들 교육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사역자분들과 자르카 교회 성도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있구나' 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셨구나' 꾸준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계속해서 나를 찾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가장 기다리던 와디럼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작년 요르단 비전트립에 다녀왔던 지체들이 모두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았던 '별'을 보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광야에서 만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을 우리

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기도 제목과 비전을 구했습니다. 사실 요르단으로 향할 때 가져간 기도 제목은 비전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보다 먼저 자녀 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것을 구하게 하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광야에서 개인 기도시간에 제게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팀원들과 캠프파이어를 하며 나누는 찬양과 기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일곱째 날이자 와디럼에서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홀로 광야로 향했습니다. 조그만 바위 언덕을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까지 보이는, 탁 트이는 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느보산에서 주신 '구체적인 비전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꿈이 피었습니다. 제 능력의 부족으로 포기했던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그 꿈을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비전트립 후기가 4번째입니다. 다녀온 직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아주 짧은 후기가 있었고, 에펠레사에서 요청했던 후기, 샤르단 모두가 작성한 후기, 그리고 진나 빛입니다. 요르단을 다녀온 직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썼는데, 비슷한 듯하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점이 신기합니다. 약간 기억이 희미해졌나? 싶은 마음도 있던 한데, 그렇지만 이 비전트립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비전트립이 단순한 경험이 그치는 것이 아닌, 평생 잊지 말고 지니고 있어야 할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샤르단,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성은(수리과학부 21)

찬양 버스킹

지난 10월 30일(월)에 찬양 버스킹 'Hope Again: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다'가 문화관 앞에서 진행됐다.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친근한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서기연 학부생 및 대학원생 8명이 보컬, 키보드, 기타, 카혼으로 섬겼으며, 공연곡은 아래와 같다.

1. 달리기 - 옥상달빛
2. The Father's Song - 제이레빗
3. 사랑이란 - 김도현 (with 옥상달빛)
4. 빛 - 이진아 (원곡 H.O.T.)
5. 너의 계절이 되어줄게 - 제이레빗, 김영우
6. 하나님의 열심 - 러빔
7. Who am I - Casting Crowns
8. 어둔 날 다 지나고 - WELOVE



바이블 칼리지 수강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바이블 칼리지 중 <인문학과 성서>를 수강하고 있는 철학과 22학번 김성현입니다. 사실 <인문학과 성서>를 신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를 배우는 것에 더불어, 학문적으로도 기독교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늘같은 공금강을 포기하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문학과 성서 강의를 통해 일반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을 넘어 색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었

고, 다음 분기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문학과 성서는 3회차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2회차 강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섭리와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개념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섭리(혹은 은혜)라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거나 나빠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냥 본인이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었지요. 이렇게 두 시각 중 어떤 시각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은 '섭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에서는 중국사와 성경 모두 예

기를 했었는데, 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에스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아름다운 왕비를 좇아낼 확률, 새로운 왕비를 식민지 족속인 유대 민족에서 삼을 확률, 그 왕비가 결국에는 자신의 민족이 멸족하는 것을 막을 확률, 이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서사가 성립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빈약한 글솜씨인지라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문학과 성서에는 이외에도 '성경 번역의 역사', '코란에 비친 기독교와 성서'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다음 학기 때 꼭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성현(철학과 22)

비전스쿨 수강생의 글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언어학과 장효형입니다. 지역 교회만 다니다가 남승호 교수님의 소개로 '서울대 비전스쿨' 1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그러하시듯이, 저도 제 교회에서 작고 큰 사역을 맡아 헌신했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예비되고 있을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은 기도와 생각과 토의와 시도의 과정이었고, 또 실패와 기쁨과 미련과 놀라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제 경험들이 어떤 열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을지, 다른 지체들은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

는지 궁금해서 지원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심지어 해외에서도 모였습니다. 각자의 교리적인 차이점이 문제를 일으키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보다 더 전에 저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역사, 창업, 재정, 과학, 선교, 결혼, 정치, 경제, 국제문제, 교육 등 매주 바뀌는 강의 주제 안에서 비전스쿨은 각자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고자 날밤을 고민하신 '학교장님' 및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마다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키워내셨던 저희 학생들, 그리고 그런 저희보다 앞서 세상을 해치고 주님의 뜻을 연구하셨던 강연자 멘토분들까지 모두 비전스쿨의 소중한 토피바퀴입니다. 이제 두 달을 좀 넘은 저희는 미숙하지만 조심스럽게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시를 씁니다. 멜로디도 색깔도 없는 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유한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주님에게 구원과 평강을 부르짖는 인간의 간절한 기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비전스쿨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으며, 더 많은 풍성함을 보여 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울대 비전스쿨이 주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연결하시려고,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와 더 낮은 곳에 선함을 퍼뜨리게 하시려고 마련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남은 기간의 강연, QT, MT, 해외선교, 팀프로젝트와 인턴십까지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놀라움을 느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장효형(언어학과 17)

선교사 전시회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앙도서관 터널에서 서울대 선교사(宣敎士)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총 12면의 대자보가 붙었고, 1~7면에 만화를, 8~9면에 본지 <진리는 나의 빛>으로 읽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33년 : 포스터로 보는 개/종강예배 코너를, 10~11면에 사진으로 보는 서울대 선교사 30년을, 마지막 면에는 연합 취지문이 실렸다. 1990년대부터 2023년까지의 서울대기독교인연합(이하, 서기연) 역사를 담았다.

전시회는 시험 기간에 학우들이 할 법한 생각을 다루는 만화로 시작한다. 만화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움을 짚었다.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해서, 원하는 직장을 붙는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담고자 하였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 만화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때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소망은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죽음까지도 넘어선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아픔과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시켰다. 이 소망과 희망은 오늘 우리가 겪는 회의와 불안 이겨낼 힘이 된다."

만화를 제작한 관계자는 "우리가 불안과 회의를 느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결핍과 이로 인한 갈망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밝히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불안의 해소로 이어진다. 이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의 극치이다. 다만, 죽음으로 그 사랑이 종결되었다면 우리에게 마음엔 결핍이 다시금 생길 것이다. 그분의 부활은 사랑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 요즈음 소망 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의 안식이 시험 기간 당신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였다. 만화와 함께 중간고사 시험 기간 지친 학우들을 위해 소소한 이벤트 또한 진행되었다.

33년간 본지에 실린 포스터가 모여 서울대기독교인연합 33년 : 포스터로 보는 개종강예배 코너가 제작되었다. 10~11면에는 선교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실렸다. 5,000명이 아크로폴리스에 모였던 특별집회 사진이 이목을 끌었다. 12면에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취지문이 실렸다. 대학생들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이 드러나고자 함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선교사 전시회에 대한 감상이다. 고성현(테이터 사이언스 석사과정)은 "작년 초 대학원 생활이 힘든 가운데 주님이 깊이 만나주셔서, 주님을 전하고 싶다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시기에 안전을 제안했다. 주님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포스터를 붙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게시판엔 정말 많은 포스터가 있는데 그 중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복음은 어느 개인이나 선교단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기연 안전으로 제시했다. 중앙도서관에 전시된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쪼록 교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명진 중앙위원(수의예과 23)은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과거 서기연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또 포스터를 붙이며 서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신화영 중앙위원(심리학부 20)은 "선교사 전시회를 통해 아주 오래전 서기연 역사에 관해 보게 되었는데 이전부터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50년 전의 서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하심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전시회 종이를 붙이면서, 이러한 전시회에 함께할 수 있음에 무척 영광스러웠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환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개강 연합사경회

1일차



대표기도 - SFC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지체들



합심기도의 시간

2일차



2일차 기도



예배 후 찬양팀



성도들로 채운 예배장



목사님의 설교 시간

3일차



마음을 여는 찬양



식교제 시간 - 사회기연



식교제 시간 - 공기연



식교제 시간 - 인기연